

규만생각 ① KT가 속으로 병들고 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낙하산으로 등장하는 함량미달 경영진들 때문에, 제대로 된 경영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마침내는 자신의 임기내에 경영실적이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전국의 전화국 건물 수십개를 팔아먹고, 다시 그 건물을 임대하여 비싼 임대료를 납부하길 거의 10여년, 앞으로 몇 년만 더 지나면 임대료가 매각대금을 다 깎아먹는 웃지 못할 일도 생겨날 듯 하다.

아직도 유선전화나 데이터의 전송통로로 이용되는 땅속에 깔린 구리 케이블을 빼내어, 매각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갈수록 심선 부족으로 새로 공사를 발주하여 심선 재배치를 하는 등 쓸데 없는,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돈 들여 하는 일이 발생한다.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18억원을 상납하고, 그들의 지시로 전무와 상무를 채용하여 그들의 광고회사에 68억원의 광고를 몰아주기도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렇게 알아서 협조하는 능력을 인정받은 것인지, 경영을 워낙 잘해서 그런 것인지 KT회장은 매년 2배의 연봉인상 능력을 발휘하며, KT에서도 "황의 법칙"을 재현했다는 우스개 소리도 들린다.

작년만해도 1조4천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8천억에 달하는 당기 순이익을 올렸다고 엄청난 경영성과임을 내세워, 수십억원을 챙겨가는 경영진들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단통법으로 인해 치열한 보조금지급 경쟁을 하지 않아서 생긴 이윤이라는 지적과, 8천여명의 직원을 짜르고 난 뒤, 인건비 부담감소에 의한 효과라는 지적도 있지만, 일단 경영성과를 낸 것으로 인정하자. 그럼 그런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경영진들이 받는 성과에 준하는 성과급 지급이나 임금인상 등, 직원들도 뭔가 챙겨줘야 하지 않나? 직원들은 앉아서 놀고 경영진들만 이뤄낸 결과인가?

KT내부의 조직문화도 큰일이다. 세상 사람들을 소통시켜주는 통신과 소통의 전문기업이, 스스로는 거의 소통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부터의 지시만 있고 아래로부터의 의견은 올라가기 어렵다. 군대 조직도 아니거늘 알아서 기느라고 애시당초 제대로 된 소통이 없다. 입바른 소리하면 제대로 짝한다. 비상식적이거나 무리한 지시들도 거부없이 따른다. 이런 조직은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인 생각과 행동이 나올 수 없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나서, 상품판매에 대한 압박은 갈수록 집요하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명분하에서의 작업일보 작성은 거짓 과다 작성의 악순환을 부른다. 누구를 위한 줄 세우기인가? 현장 지휘관인 지사장 지점장 팀장들의 목표를 위해 전 직원을 서로 경쟁하게 하고, 상대를 밟고 일어서야 평점이라도 좀 더 잘 받을 수 있다는 논리와, 그에 대한 이해가 팽배하다. 진정 KT는 동물의 왕국인가?

몇몇 경영진에 기대서 그에 기생하듯 KT를 뜯어먹는 수준으로 운영해 온 경영진과 고위 임원진들은 반성하고 물러나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변해야 산다. 사람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고, 열정과 도전의식이 넘치는 진정한 IT전문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국민통신기업 KT를 KT답게!
노동조합을 노동조합 답게!**

**100년 통신 역사를 지켜온 우리들, 200년, 300년 이어질 KT
우리가 KT입니다.**

